

碩士學位請求論文

段落의 構造分析을 통한  
要約指導 研究

指導教授 金光雄



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安美英

1996年8月

段落의 構造分析을 통한  
要約指導 研究

指導教授 金 光 雄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6 年 6 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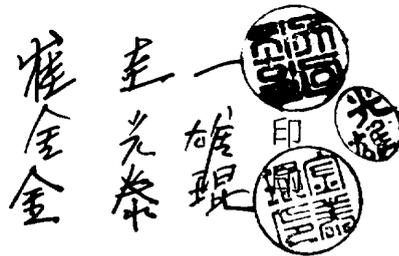
提出者 安 美 英



安美英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6 年 7 月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段落의 構造分析을 통한 要約指導 研究

安 美 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光 雄

요약하기는 국어교과는 물론 타교과의 학습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학습전략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요약하기가 중요한 학습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기능외에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표현 등 보다 상위의 종합적인 언어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잘 다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요약의 대상인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단락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설명문이 논리적인 성격이 강하여 단락의 구조분석과 요약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하다는 점과, 사회·자연 등 다른 교과에 실린 글들이 대체로 설명적인 글이므로 국어교과의 도구교과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의 초점을 설명문에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선택한 자료문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자연과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가려 뽑은 글들이다.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으로 II장에서 텍스트의 구조 분석 이론과 요약하기 규칙, 단락 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요약지도의 실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하여 먼저 한 단락의 자료문에서 단락의 구조를 분석한 후 요약규칙을 활용하여 중심문장 찾기를 지도하고, 다음으로 전체 설명문의 요약문을 작성하는 순으로 실시하였다. 요약하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반과, 이를 실시한 실험반의 지도 전·후 요약문을 비교분석해 본 주요 결과 단락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요약 지도가 학생들의 요약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약하기의 가장 상위 수준인 제 4 수준으로의 이동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요약지도와 함께 자신의 말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쓸 수 있도록 쓰기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요약규칙 중에서 삭제규칙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며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문장은 삭제할 수 있으나, 귀납법적인 일반화된 문장으로의 구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본 논문은 199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범위 .....	3
II. 텍스트 분석과 단락 이론 .....	5
1. 텍스트 구조 분석 이론 .....	5
2. 텍스트 요약 .....	9
3. 단락의 전개 원리와 방식 .....	13
III. 단락의 구조분석을 통한 요약하기의 실제 .....	20
1. 단락의 중심 내용 찾기 .....	20
2. 전체글 요약하기 .....	35
IV. 요약 지도의 적용과 검증 .....	41
1. 대상 .....	41
2. 지도 방법 개관 .....	41
3. 요약 지도 적용 결과 검증 .....	43
V. 결론 .....	50
◆ 참고문헌 ◆ .....	52
◆ ABSTRACT ◆ .....	54
◆ 부록 ◆ .....	55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고 생활해 나가는 존재이다. 정보화의 물결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음성 언어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상 생활이나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를 읽기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읽기 능력은 학습의 중심 활동이 되므로 문자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읽기 능력은 학습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국어과의 성격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도구 교과'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읽기 능력의 향상은 중요한 과제이며 읽기 능력의 높고 낮음은 학습 능력의 높고 낮음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국어 교과가 도구 교과라는 것은 기호로서의 언어 체계가 단순히 다른 교과의 학습 내용을 표기하고 전달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sup>1)</sup>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호로서의 언어 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른 교과의 학습에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국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란 구체적으로 국어를 통한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과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언어사용의 기능(技能)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 사용의 기능'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면서도 '기

---

1)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 79.

능'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 놓은 바가 없다.<sup>2)</sup> 따라서 '언어 사용의 기능'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 영역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 사용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읽기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면 초등 학교 1~2학년 정도의 읽기 지도(문자 지도)를 받으면 대부분의 학생은 한글을 깨우치고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단지 문자 해독(decoding)을 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지, 필자가 의도하는 정확한 내용을 재구성한다거나 혹은 독자 스스로의 목적에 맞는 읽기를 할 수 있는 고등 수준의 읽기 기능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 초등 학교 후기 이상의 읽기지도는 준문맹<sup>3)</sup>을 퇴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해독 이후에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읽기에서 더욱 본질적인,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지도를 무시해 왔다. 어구의 뜻, 문법 사항, 장르나 수사법에 대한 지식 및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의 내용만을 정확하게 주입시키는 지식 위주의 읽기 지도로 일관해 왔다. 읽기가 성장을 구성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문자 해독 수준으로는 불충분하고,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고등 수준의 독해 기능이 있어야 한다.

국어 시간, 특히 읽기 지도 시간에 다루어야 할 읽기는 주로 독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독해는 지식 획득을 위한 결과 중심의 읽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읽기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미 획득 과정으로서의 독해이다. 따라서 독해 지도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몇 편의 글만 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글이라도 잘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어(읽기)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했는가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국어 수업의 대부분이 읽기에 치중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의 읽기 교육은 단순히 음성적 해독

2) 1:擧書, p. 81.

3) 문자 해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 한다면, 문자 해독을 할 수 있지만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준문맹이라 할 수 있다.

이나 지식의 습득에만 치우쳐 왔다. 평가나 입시를 위한 교과서 분석 위주의 읽기 지도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독해력 신장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읽기 교육에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자를 해독하고 기능적 문맹의 상태에서 벗어나 정보처리에 필요한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읽기 능력을 개발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국어과의 읽기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읽기는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메시지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며,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결과는 요약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요약하기는 글의 내용과 짜임을 분석, 종합,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종합적 행위로서 비판적 읽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sup>4)</sup> 독해는 결국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요약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sup>5)</sup>

요약하기는 국어 교과는 물론 타교과의 학습에도 필수적인 학습 전략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요약하기가 중요한 학습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기능 외에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표현 등 보다 상위의 종합적인 언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잘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요약의 대상인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단락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 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글의 종류를 설명문에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설명문은 논리적인 성격이 강하여 단락의 구조 분석과 요약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초등

4) 서혁(1990), "단락·문장의 중요도 파악과 단락의 주제문 작성 능력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

5) 교육부(1993),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p.192.

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하다는 점과, 사회·자연 등 다른 교과에 실린 글들이 대체로 설명적인 글이므로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의 초점을 설명문에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실험 대상으로 초등 학교 5학년 한 학급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실험 대상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학급 단위에 따라 임의 선정된 관계로 피험자들의 지역별, 계층별, 성별 등 환경 요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요약 기능에 관련된 쓰기 기능에 대한 선행 조사가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 검증에서 요약한 글을 제 1 수준 ~ 제 4 수준으로 평가할 때 사전에 채점 기준을 마련했지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요약할 때 학생들의 쓰기와 관련된 표현상의 문제에서 맞춤법이나 자연스럽지 못한 연결 등은 무시하고, 핵심 어구나 주제문 선택 등 텍스트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Ⅱ. 텍스트 분석과 단락 이론

### 1. 텍스트 구조 분석 이론

모든 독서 행위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텍스트는 독자 외부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텍스트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독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70년대 중반부터 텍스트 이론가들은 텍스트의 구조를 밝히는 일과 텍스트 구조가 실제 독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sup>6)</sup>

텍스트는 무작위로 나열된 단어나 문장의 집합체가 아니라 결속성<sup>7)</sup>과 응결성<sup>8)</sup>을 가진 이어진 글 전체를 말한다.

텍스트를 언어 연구의 기본 단위로 삼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利點<sup>9)</sup>이 있다.

첫째, 무질서한 문장의 집합체에서는 각 문장 사이에 內的 連結性을 구

6)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연구로는 설명문에 대한 것으로 Kintsch(1974), Meyer(1975), Frederiksen(1975)를 들 수 있고, 이야기(story)에 대한 것으로는 Rumelhart(1975), Mandler와 Johnson(1977), Thorndyke(1975), 그리고 Stenin 과 Glenn(1977) 을 들 수 있다. (노명완(1989), 국어교육론, 한샘, p.119.)

7) 하나의 텍스트가 “의미 있다” 는 것은 그 텍스트의 표현들로 활성화된 지식간에 의의의 연속성(意義의 連續性 : Continuity of sense)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의의 연속성을 결속성의 기반으로 규정하는데, 결속성은 여러 개념과 그들 관계가 이루는 한 구성체 내부에서 갖는 상호적 접근과 적합성이다. ( Beaugrande, R.A. & Dressler, W.U.,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金泰玉·李玄浩 譯(1991), 養英閣, p. 82.

8) 응결성은 텍스트를 이루는 의미 내용의 연결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련의 문장들이 텍스트로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24.)

9) 노명완(1989), 前掲書. p. 119.

성할 수 없으나, 텍스트에는 각 문장 사이의 관계와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각 문장 사이의 질서 정연한 연계는 독해 후에 독자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意味의 表象 體系로 構造化가 가능하다.

둘째, 독자들은 글을 읽을 때에 낱말의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주제에 비추어 각 의미 요소들 사이의 중요도도 구분한다. 독해 과정 속에는 이같은 중요성의 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탐구는 분석의 대상이 문장 수준이 아닌 텍스트 수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텍스트의 분석은 각 내용 요소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내용 요소 사이의 관계의 구조화는 곧 의미의 표상 체계로서 중요도의 지표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텍스트 분석 체계들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텍스트의 구조 분석의 단위로서 명제(proposition)<sup>10)</sup>를 선택한 점이다. 두번째 공통점은 텍스트의 구조를 위계 구조로 보는 관점이다. 텍스트의 위계 구조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정보는 하위에 위치하는 정보보다 더 잘 기억된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위계 구조는 곧 텍스트에 담긴 정보의 중요도의 위계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 분석 이론 중에서 특히 설명문의 구조 분석과 관련하여 프레드릭슨(Frederiksen), 킨취(Kintsch), 마이어(Meyer)의 분석 모형을 들 수 있다.

프레드릭슨<sup>11)</sup>은 글의 구조는 그 글을 만들어 낸 필자의 지식 구조의 반영이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의거하여 그는 지식 구조의 기저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意味 構造와 論理 構造로 글의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을 의미 전달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 명제 단

10) 명제는 하나의 술어(predicate)에 하나 이상의 서술 대상(argument)이 결합된 의사전달의 최소 단위이다. Kintsch 등(1978)은 명제 사이의 반복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려 했고, Meyer(1975)는 명제 사이의 수사적 서술 관계를 중심으로 위계적 구조를 밝히려 했다. (천한신(1987), "인지발달에 따른 글 내용의 중요도 파악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13.)

11) 노명완(1989), 前掲書, pp.178~184 참조.

위로 분석하고, 命題內的 概念間的 關係(意味 構造)와 命題間的 關係(論理 構造)를 규명하여야 한다.

의미 구조는 각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網狀으로 표상 하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드릭슨은 개념의 유형을 크게 事件(또는 對象) 유형과 狀態(또는 行爲) 유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상태 관계(stative relations), 격 관계(case relations), 속성 관계(attributive relations)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눈 후, 이들 개념의 특성과 개념간의 관계를 조합하여 글의 의미 특성을 망상 구조로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드릭슨의 논리 구조는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 유형으로 되어 있다. 그는 명제간의 관계를 논리(logical) 관계, 因果(causal) 관계, 相關(algebraic) 관계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킨취는 글의 표층 구조는 독해 과정에서 명제 단위로 해석이 되고, 이 명제들의 총체가 곧 텍스트의 기저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텍스트 기저는 일관성 있고 구조화된 단위로서 킨취는 이를 텍스트의 기저 구조, 텍스트의 형판 기저, 프로토콜 텍스트 기저의 세 가지 유형<sup>12)</sup>으로 구분하고 있다.

킨취는 의미 표상 이론에 반딕(Van Dijk)의 담화의 일반 이론을 통합하여 독해의 심리적 처리 과정 모형을 발전시켰다. 독해 과정 모형의 구안에서 킨취가 가졌던 중요 관심사는 독해 과정에서 글의 결속과 글 내용의 요지가 어떻게 처리되며, 독해 결과로서 내용의 회상과 요약이 어떻게 산출되는가 하는 점이다.<sup>13)</sup> 다시 말하면, 킨취는 글을 읽는 사람보다는 읽는 글 자체에 관심을 갖고, 글속에 담긴 정보가 처리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밝히려고 하였다.

12) 텍스트 기저 구조(text base structure)는 글을 쓸 필자의 지식 구조로서 오직 추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텍스트의 형판 기저(template text base)는 지식 구조로서의 텍스트 기저 구조를 표상 하는 것으로 연속적 위계로 구조화될 수 있는 일련의 명제들로 이루어진다. 프로토콜 텍스트 기저는 독자가 글을 읽고 난 후에 독자의 머리 속에 회상되는 내용을 말한다. ( 노명완(1989), 轉揭書, p. 226.)

13) 노명완(1989), 前揭書, p. 230.

킨취의 체계는 여러 면에서 프레드릭슨의 체계와 유사하나 킨취는 글의 상위 구조인 조직 형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프레드릭슨은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표상에 관심을 보였다. 킨취의 체계는 적용의 포괄성이 크다는 장점을 갖지만 텍스트의 의미 표상만을 다룰 수 있을 뿐 텍스트 그 자체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과 상위 명제의 선정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마이어(1975)는 글 내용의 조직 구조에 근거하여 글 분석 방법을 발전시켰다. 주로 글의 내용 구조와 관련되는 그의 모형은 필모어(Fillmore)의 格文法과 그라임즈(Grimes)의 命題 意味 文法에 크게 의존하여, 述語(predicate)와 論項(argument) 사이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분류가 특징적이다.<sup>14)</sup>

그녀는 그라임즈의 연구에 힘입어 어휘적 서술보다 상위의 수준에서 명제와 명제의 연결 관계를 담당하는 修辭的 敘述 (rhetorical predicate)<sup>15)</sup>을 설정하고 있다. 수사적 서술은 일차적으로 글의 전체적 조직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휘적 서술과 수사적 서술을 적용하여 분석된 글은, 킨취의 명제적 텍스트 분석과 마찬가지로, 나무 모양과 비슷한 하나의 위계 구조 형태로 표상된다. 위계 구조에서는 높은 위치에 처한 정보는 낮은 위치에 처한 정보보다 회상될 확률이 높다.

마이어는 내용의 위계 구조에서 상위 정보가 하위 정보보다 더 잘 회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의 설명 방법을 타진해 보았다. 이 네 가지는 반복성(repetition), 포섭성(subsumption), 인출(retrieval), 그리고 선별적 처리(selective processing)이다.<sup>16)</sup> 이 중 선별적

14) 서혁(1990), 前揭論文, p. 21.

15) 마이어가 확인하여 낸 수사적 서술에는 세 가지가 있다: ① 對等的 敘述 (paratactic predicates)은 둘 또는 그 이상의 論項을 대등하게 연결짓는 것이고(예 ; 반응, 문제와 해결 등), ② 從屬的 敘述 (hypotactic predicates)은 대등하지 않은 종속 관계의 논항들을 연결짓는 것이며( 예 ; 증거, 중심 생각과 그에 대한 증거 등), ③ 中立的 敘述 (neutral predicates)은 필자의 강조에 따라 대등적 서술이거나 종속적 서술 어느 쪽도 취할 수 있는 것(예 ; 수집)이다.

16) 노명완(1989), 前揭書, pp. 234~235.

처리하는 정보의 처리에서, 특히 ‘요약하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다.<sup>17)</sup> 필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과 형식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접근하게 된다. 바로 이점(텍스트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고 ‘읽기’에 들어가는 것이 능숙한 독자의 전략이기도 하다.

## 2. 텍스트 요약

### 1) 글 내용의 중요도 평정

글 내용의 중요도 평정은 요약하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글 속에서 무엇이 가장 주된 것이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그 글을 요약할 수 있고 주제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글을 쓰는 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글 내용의 정보들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설명적인 글과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비교해 보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설명적인 글에서는 필자의 논의 주제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들이라고 올스(Aulls, 1977)는 말한다.<sup>19)</sup> 또한 텍스트에서 정보들의 중요도는 독자들의 독서 목적에 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피케르트와 앤더슨(Pichert & Anderson, 1977)의 실험에 따르면, ‘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도둑의 처지와 집을 사려는 사람의 처지에서 읽었을 때에 기억하는 정보의 종류가 각각 달랐다. 집을 사려는 사람의 처지에서 읽은 독자들은 지붕이 썩어 햇빛이 스며들고, 지하실에 습기가 많다는 등 그들의 처지에서 볼 때 중요

---

17) 서혁(1990), 前掲論文, p.22.

18) 천한신(1987), 前掲論文, pp. 29~30.

19) 이삼형(1994), 前掲論文, p.83.에서 재인용.

한 정보들을 기억하였고, 도둑의 처지에서 읽은 독자들은 차고에 있는 좋은 자전거, 외따로 떨어진 집의 위치 등 도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였다.<sup>20)</sup>

반딕(1977)은 텍스트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맥락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한다. 텍스트 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필자에 의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할 때 교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맥락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흥미, 배경 정보, 독서의 목적 등을 포함하는 독자들의 입장과 환경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sup>21)</sup> 물론 텍스트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맥락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일치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

텍스트 내용 구조 분석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는 반딕이 말하는 텍스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말한다. 텍스트 분석가들은 텍스트의 내용들이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계층적 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정보가 그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있다.<sup>22)</sup>

## 2) 요약하기 규칙

텍스트에 대한 분석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해와 요약과의 관계가 규명되고, 요약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킨취와 반딕(1978)은 텍스

20) 노명완(1989), 前掲書, pp. 272~277. 참조.

21) 이삼형(1994), 前掲論文, p. 83.

22) 텍스트 내용 구조 분석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띤다. 그 하나는 최상위 수준에 정보가 위치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최상위 수준에 정보가 위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최상위 수준에 정보가 위치하는 형태는 중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텍스트로서 최상위 수준에 위치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중심 내용이 된다. 그러나 최상위 수준에 정보가 위치하지 않은 형태는 최상위 수준의 관계를 이루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림의 왼쪽과 같은 형태로 분석되는 내용 구조에서는 정보1이 그 텍스트의 중심 내용이 되고, 오른쪽과 같이 분석되는 내용 구조에서는 정보1과 정보2를 종합해야 중심 내용을 알 수 있다.(이삼형(1994), 前掲論文, p. 86 참조)

트 이해와 관련시켜 요약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sup>23)</sup> 그들은 글의 전체적인 의미는 거시 구조(macro structure)에 의해서 표상 된다고 하고, 거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미시 구조(micro structure)에 있는 정보들을 의미적 도식화(semantic mapping)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미적 도식화의 과정은 미시 구조의 정보들을 축소하고 조직하는 거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거시 규칙이 곧 요약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킨취와 반딕이 제시하고 있는 거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삭제 : 명제들 중에서 후속 명제의 해석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속성들을 나타내는 명제들을 삭제한다.
- ② 일반화 : 명제들을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한정되는 명제로 대체한다.
- ③ 선택 : 명제들 중에서 또 다른 명제들에 의해서 지시되는 사실이나, 일반적인 조건들을 선택한다.
- ④ 구성 : 명제들을 일반적인 조건, 요소, 결과들을 지시하는 하나의 명제로 대체한다.

브라운과 데이(Brown & Day, 1983)는 킨취와 반딕의 요약 규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킨취와 반딕이 명제 단위로 지극히 분석적으로 치우친 데 비해, 이들은 적용의 단위를 문장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예로 이들은 주제문 선택(Topic sentence selection), 주제문 창출(Topic sentence invention)의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는 킨취와 반딕에 비해 비교적 긴 글의 처리를 고려하여, 다분히 단락별 요약을 통한 단락간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킨취와 반딕의 요약 규칙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에 적용한 이들의 규칙은

23) 上掲論文, p. 89.

24) 서혁(1990), 前掲論文, p. 36.

다음과 같다.

- ① 사소하거나(trivial)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 ②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반복되는(redundant) 내용은 삭제한다.
- ③ 항목의 목록(list)들은 가능하면 상위어로 대체한다.
- ④ 행동의 하위 요소의 목록 대신 포괄적 행동으로 대체한다.
- ⑤ 주제문(topic sentence)선택 : 글 속에 주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이를 선택한다.
- ⑥ 마땅한 주제문이 글 속에 없을 때는 스스로 창출한다.(Topic sentence invention)

이 중에서 주제(문)작성과 관련되는 ⑤, ⑥은 특히 요약하기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데이는 요약 규칙의 학년별 사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의 요약 양상을 검토하였는 바, 5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 생들은 가장 단순한 복사·삭제 규칙을 주로 사용하는 데 비해, 고3과 대학생의 경우는 주제 작성과 상위어로 통합하는 규칙의 사용에 훨씬 뛰어났다.

한과 골드만(Hahn & Goldman)은 브라운과 데이(1983)를 바탕으로, 요약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요약 처리에서 더 상위의 요약 규칙이 요구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sup>25)</sup> 한과 골드만은 브라운과 데이와는 달리 피험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참고하면서 요약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억 발달의 변인으로부터 요약하기 기능의 발달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한과 골드만은 실험용 텍스트로 각각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記述內容構造(description content structure)와 論據提示/證明構造(thesis/evidence content structure)를 사용하였다. 이 둘을 각각 주제문(topic sentence)의 제시 여부에 따라 나눔으로써 모두 4가지 집단으로 실

---

25) 上掲論文, p.37.

험을 실시한 것이다. 기술 구조 유형으로서 주제문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상위어로의 代置와 관련되는 측면이 강하고, 논거 제시/증명 구조 유형으로서 主題文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원인을 도출해 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과 골드만의 특징은 요약의 길이를 달리함에 따라 요약 전략이 변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제시된 글을 차례대로, 1) 단락당 2~3개의 문장, 2) 단락당 1문장, 3) 전체를 1문장으로 요약하게 하고 거기에 적용된 전략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4학년과 6학년 모두가 복사·삭제 규칙의 적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상위 학년(6학년)일수록 단순 복사·삭제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主題文 작성 및 단락간 主題文 통합 규칙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상위의 규칙을 잘 활용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글 전체를 하나의 주제문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6학년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4, 6학년의 요약 능력 비교에서 主題文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단락의 전개 원리와 방식

단락을 전개하는 원리는 일반적으로 통일성(unity), 연결성(coherence), 강조성(emphasis)의 세 가지로 가르친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사법의 3대 원리라고 지칭되어 오던 것으로서 모든 글을 짓는데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단락의 경우에도 이 3가지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글을 전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각 단락을 전개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성이란 하나의 소주제문(topic sentence)을 발전시키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만을 선택하고 그 밖의 것은 일체 배제해야 한다는 원리다. 재료 선택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통일성의 원리는 글의 요지 곧 주제를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글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떠받들

수 있는 재료들만을 골라 써야만 초점이 뚜렷한 글이 되며, 결국 필자가 글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제와 상관없는 재료들이 끼어 든다면 주제에 대한 뒷받침이 갈라지고 혼선이 빚어지므로 요지가 불분명한 글이 되고 만다.

연결성의 원리는 글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배열해야 함을 뜻한다. 통일성의 원리가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는 요건이라면, 연결성의 원리는 그 선택된 재료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요건이 된다. 연결성의 원리는 통일성의 원리에 따라 선택된 재료들을 순리적으로 배열해서 글의 주제를 설득력 있게 드러내도록 하는 전개 원리이다. 연결성의 원리는 통일성의 원리와 함께 글의 전개에서 가장 기본 되는 원칙이 된다. 아무리 내용적으로 훌륭한 재료라도 잘못 배치하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시간적 순서, 공간적인 순서 또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재료를 순리적으로 엮어 가는데서 이루어진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자료 등을 다룰 경우에 그 발생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다. 또 일정 공간에 펼쳐진 사물을 다룰 때는 공간적 구도에 따라 재료를 순차적으로 배열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논리적 순서에 따른 배열이란 주로 추상적 개념이나 명제들을 다룰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논리적인 관계를 따라 순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강조성의 원리는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이 준수될 때 글 속에서 목적인 여러 요소들의 중요성이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어떤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어조를 높인다든지, 되풀이해서 말한다든지 해서 강조하듯이, 글의 경우에도 그러한 강조의 서술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글의 모든 부분이 평탄하게 펼쳐지면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글의 요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글의 전체 흐름이 단조로워질 수가 있다.

강조의 효과를 내는 방식은 대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① 서술

내용에 의한 강조, ② 위치에 의한 강조, 그리고 ③ 표현 기교에 의한 강조가 그것이다.<sup>26)</sup> 서술 내용에 의한 강조란 소주제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알맞은 설명, 논증, 또는 구체적 예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전개를 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충분한 서술을 해서 독자의 관심을 오래 붙잡아 두고 이해를 시키는 강조법인 것이다. 이것이 모자랐을 때는 단락 전개는 빈약하게 되고 따라서 글의 요지는 독자에게 불충분하게 전달되고 만다. 사실상 이 강조법이 가장 중요하고 흔히 쓰이는 것이다. 위치에 의한 강조법이란 글의 중요한 부분은 되도록 독자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락의 첫머리는 강조 효과가 가장 큰 자리이다. 이 첫머리는 제일 먼저 독자의 시선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긴장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두괄식 단락은 바로 이런 강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미괄식이나 양괄식 단락도 이러한 위치에 의한 강조 효과를 나타내는 보기이다. 표현 기교에 의한 강조법은 반복법과 과장법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도치법, 열거법, 점층법 등도 가끔 쓰인다.

글의 진술(陳述) 방식은 설명(exposition), 논술(argument), 기술(description), 서사(narration) 등 4가지로 우선 나누어진다. 이 4가지 서술 방식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온 것으로서 모든 글은 이 가운데 한 방식 또는 몇 개 방식이 어울려서 표현 전달된다.<sup>27)</sup>

이 4가지의 진술 방식은 글의 종류를 결정하는 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설명문, 논설문, 기술문, 서사문 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이 전개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4가지 전개법은 단락 전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곧 각 단락의 전개에서는 이들 4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방식이 어울려 쓰이게 된다. 사실상 글은 단락의 전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전개법은 단락을 이루는 과정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6) 서정수(1994),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사담다리, p. 24.

27) 정달영(1992), “국어 작문 교육에서의 단락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 25.

설명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전개법으로 사물에 관해서 알기 쉽게 풀이하는 전개법이다.<sup>28)</sup> 이를테면, “무엇이냐,” “어떤 뜻이냐,” “어떤 성질이냐” 하는 따위의 물음에 알맞게 대답하는 것이 설명법이다. 곧 설명법은 한마디로 독자의 의문이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서술법이다. 일반적으로 설명법은 ① 정의법, ② 비교·대조법, ③ 분류법, ④ 분석법, ⑤ 인용법, ⑥ 예시법 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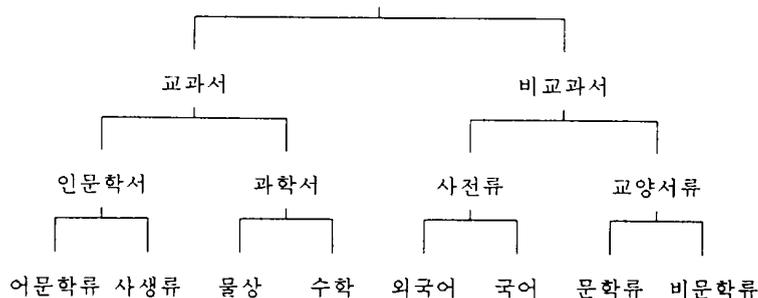
정의법(definition)은 소주제 또는 그것과 관련된 낱말에 대해서 뜻풀이를 하여 전개하는 방식이다. 소주제의 전개와 관련된 말 가운데 그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경우에는 이 뜻풀이가 그 소주제를 전개하는 중요한 실마리나 방법이 된다. 정의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낱말의 뜻을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식 정의(formal definition)로 사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정의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식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필자 나름의 견해와 해석을 덧붙여 가면서 그 뜻을 다각적으로 풀이하는 비정식 정의(informal definition)이다.

비교법과 대조법<sup>29)</sup>은 어떤 모르는 사항을 이미 알려진 사항과 비교하거나 대조하여 설명하는 데 쓰인다. 분류(classification)란 하나의 큰 무리(class)에 속하는 사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더 작은 무리로 갈라 짓는 것을 말한다.<sup>30)</sup> 분류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으며 거기에 따

28) 서정수(1994), 前掲書, p. 271.

29) “비교”와 “대조”라는 말을 구별하여 쓰는 일이 있다. “비교”(comparison)는 두 사물이 얼마만큼 비슷한가를 보여주는 데 쓰고, “대조”(contrast)라는 말은 두 사물의 다른 점을 주로 지적해서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다.

30) 분류의 예 : 책꽃이의 책



라 분류 결과도 각기 달리 나타난다. 또한 일차 분류에서 생긴 작은 부류에 다시 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위 분류를 해 나갈 수도 있다.

분석(analysis)이란 사물의 구조를 그 성분에 따라 나누어 밝히는 것이다. 분석은 하나의 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을 나누어 살펴으로써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sup>31)</sup>

인용법(quotation)은 알맞은 글이나 명언 등을 대개 직접 인용하여 소주제에 대한 뒷받침 재료로 쓰는 것을 말한다. 인용법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 등을 그대로 직접 인용해서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용법은 예시와는 구별된다. 예시는 실례나 일화 등을 대개 간접으로 빌어다가 필자 나름으로 의미 해석을 가미해서 쓰는 것이 보통이다.

예시법(illustration)은 소주제나 그 관련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목격한 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전해 내려오는 고사나 설화, 한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 신문 잡지나 일반 도서 등에서 읽은 사건 등을 알맞게 골라 써서 주제나 소주제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예시법이다. 적절하고 실감 있는 예시는 추상적인 설명이나 분석보다 훨씬 효과적인 설명력을 드러낼 때가 있다.

논술법(argument)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고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설명법이 문제를 풀이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이라면, 논술법은 자기의 독자적인 견해에 대하여 근거를 밝혀 독자를 설득시키는 것이다.<sup>32)</sup> 논술법은 논술문 곧 논설문이나 논문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이룬다. 논설문이나 논문에서는 그 주장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리 있게 펼치는 일이 그만 못지 않다. 곧 이치에 닿도록 내용을 논리적으로 펼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만일 논리성이 없고 조리가 없으면 그 주장을 독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술법은 논리적 추론을 기본으로 하는 서술법으로 논술법에서 보통 쓰이는 추론의 방법은 크게 귀납법과 연역법으로 나뉘며,

---

31) 서정수(1994), 前掲書, p. 291.

32) 前掲書, p. 315.

귀납법은 다시 “일반 귀납법”과 “유추”로 갈라 볼 수 있다.

기술법(記述法=description)이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또는 사진 찍듯이 드러내 보이는 글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양이나 빛깔 또는 외형적 특징을 글로 그려 보여 주는 것이 기술법이다.<sup>33)</sup> 기술법은 일반적으로 “실용적 기술법(또는 전문적 기술법)”과 “암시적 기술법(또는 묘사법)”으로 나뉜다. 앞의 것은 실용적 목적 또는 비예술적 목적을 위한 기술에 쓰인다. 어떤 사물에 관한 객관적 관찰 기록이나 사물의 구조들에 관하여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사실의 제시에 그치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해석은 덧붙이지 말아야만 순수한 기술법이 된다는 것이다. 암시적 기술법 곧 묘사법은 예술적 기술법이다. 실용적 기술법이 과학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예술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암시적 기술법이다. 이 묘사법이라는 기술법은 독자에게 어떤 객관적 정보나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생생한 느낌과 현실감을 자아내게 하는 점이 그 특색으로 문학적 표현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서사법은 행동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글로 엮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나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벌인 행동이나 사람과 사물이 관련되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해서 그 자초지종을 알려주는 것이 서사법이다.<sup>34)</sup>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또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에 답하는 글을 쓰는 것이 서사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법에서는 보통 시간적 질서가 바탕이 된다.

서사법에는 설명법이나 기술법(묘사법)이 곁들여지는 일이 많다. 본시 순수한 서사법은 벌어지는 사건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전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지만, 필자는 그 서술 과정에서 설명을 곁들여 사건의 의미를 표출하거나 행동자의 인물 됴됨이를 직접 소개하기도 한다. 또 사건이 벌어지는

---

33) 上掲書, p. 401.

34) 정달영(1992), 前掲論文, p. 30.

---

자리의 광경을 그대로 기술하여 보여주는 묘사법을 써서 실감을 돋구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설명적 서사법”이라 하는 수도 있으나, 어쨌든 글 전체로 보아 사건의 서술이 주된 목표인 이상 서사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 Ⅲ. 단락의 구조분석을 통한 요약하기의 실제

#### 1. 단락의 중심 내용 찾기

##### 1) 단락의 개념과 구조

속의 글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곧 단락은 글 전체 주제를 이루는 일부 주요 되도록 뚜렷한 형식적 경계를 지니는 것이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므로 그것을 하위의 소개념으로 나누어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소개념은 흔히 소주제(topic)<sup>36)</sup>라 부른다. 이는 전체 주제를 이루는 한 하위 개념으로서 단락이라는 토막글의 주제가 된다. 곧 단락은 글 전체 주제를 가름으로써 이루어지는 소주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글 속의 글인 것이다. 요컨대 단락은 한편의 글이나 문장과 마찬가지로 주제 곧 소주제를 지녀야 하며 그것이 없는 것은 단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락이란 일련의 문장들로 엮어진 조직체라고 할 때의 “일련의 문장들”이란 소주제를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여러 개의 관련된 문장 즉 “뒷받침문장”들을 일컫는다. 소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뒷받침 서술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조직체”란 여

35) 정달영(1992), 前樹論文, p. 7.

36) 서정수는 소주제의 요건으로 ① 소주제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주제는 알맞은 범주의 개념이라야 한다. (소주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이거나 또는 사소한 개념을 소주제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③ 소주제는 단일한 것일수록 좋으며 복합 개념의 소주제는 특수한 경우에만 쓴다. 등을 들고 있다. (서정수(1994), 前樹書, pp.168~178. 참조)

러 개의 관련 문장들이 무질서하고 산만하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와 배열 원리에 따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한 단락은 문장의 무의미한 混集(a hodgepodge)이 아니라 문장의 일관성 있는 집합이라야 한다.<sup>37)</sup>

조직체가 서로 잘 구분되도록 뚜렷한 형식적 경계를 지닌다는 점은 단락이 하나의 소주제를 충분히 펼치는 글 속의 글이라 할 때 그것은 분명한 경계가 주어져서 단 단락들과 서로 구분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래야만 한 단락에서 다루는 소주제와 그 뒷받침 문장들이 한데 묶여서 분명한 단위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소주제와 그 뒷받침 문장들이 갈라지고 흩어져서 단 단락의 것들과 뒤섞인다든지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면 조직체로서의 요건이 허물어지고 만다. 이런 점에서 단락 이론에서는 일찍부터 한 단락의 내용 전개를 분명히 경계짓는 형식적 표지를 써 왔다. 단락의 형식적 구분을 하는 데는 “들여 쓰기(indention)”가 가장 널리 쓰인다.<sup>38)</sup> 그 밖에 내 쓰기라는 것도 있고 그저 줄만 바꿈으로써 단락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한 단락은 다른 단락과 구분하기 위한 형식적 표지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전체 글이 한데 뒤섞이거나 무질서하게 갈라져서 체계적인 내용 전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됨으로써 글을 쓰는 데나 읽는데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락의 짜임새는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소주제문을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들이 떠받들어 단락을 이룬다는 것이다. 소주제를 어느 위치에 두고 뒷받침 문장을 배열하느냐에 따라 단락은 이른바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 중괄식 그리고 무괄식의 유형<sup>39)</sup>으로 나누어진다.

두괄식의 단락은 소주제를 소주제문의 형식으로 명문화시켜서 맨 앞에

37) 김봉균(1993), 「문장 기술론」, 삼영사, p. 413.

38) 들여 쓰기가 단락 구분의 중요한 표지이기는 하나 들여 쓰기만 했다고 단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단락임을 확인하는 참된 특질은 그 중심 사상이다. 요컨대 소주제를 펼친 내용과 형식이 일치했을 때 참된 단락이 되는 것이다.(정달영(1992), 前揭論文, p.10.)

39) 서정수(1994), 前掲書, pp. 195~204.참조

내걸어 놓고 그것을 떠받드는 뒷받침 문장들을 그 위에 늘어놓는 짜임새이다. 첫머리 부분에 단락의 핵심이 놓이고 그 뒤에 그것을 풀이하거나 합리화하는 뒷받침 요소들이 이어지는 꼴이다. 이른바 역 피라미드 형식의 짜임새인 것이다. 근래 우리 나라 글에서도 설명문이나 논술문 등에서 이런 두괄식 단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양괄식의 단락은 소주제문을 첫머리에 내걸고 그것을 뒷받침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소주제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짜임새이다. 이 단락은 실제로 두괄식의 짜임새와 같은 것인데, 끝에 가서 소주제문이 한번 더 보이고 있는 점이 다르다.

중괄식의 단락은 소주제문이 그 중간에 놓여 있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뒷받침 문장이 나뉘어 있는 짜임새이다. 곧 앞 부분에서 다소간의 서술을 한 다음에 소주제문을 보여 주고 그 뒤에 다시 보충적인 서술을 하는 방식이다. 중괄식은 사실상 두괄식의 한 변종으로 여길 만한 것이다.

무괄식 단락은 소주제가 소주제문의 형식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뒷받침 문장들만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일반 단락은 소주제를 전개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 경우에도 소주제는 있게 마련이고 또 그것이 뒷받침되어 드러나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무괄식에서는 그것이 단락의 표면 문장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일반단락이다. 주어진 핵심 과제인 소주제를 뒷받침하여 발전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글에는 이런 일반 단락 외에 특수한 단락이 한두 개 끼어 있다. 이들 특수 단락은 글의 시작, 끝맺음 등의 특수 목적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다. 특수 단락은 도입 단락, 전환 단락, 종결 단락, 주단락과 종속 단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두괄식 유형의 단락 분석<sup>40)</sup>

40) 한 단락에서 문두와 문미는 가장 큰 강조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그 단락의 강조를 위해 소주제문이 문두나 문미에 오는 경향은 당연한 것이다. 초등 학교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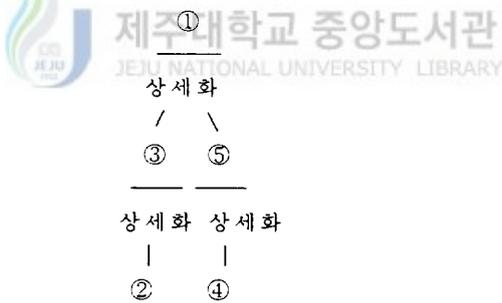
① 열이 이동하는 현상에는 열의 전도와 대류가 있다. ② 철막대나 구리 막대의 한 쪽 끝을 가열하면 가열하는 곳에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여 열이 전달된다. ③ 이와 같이 쇠로 된 물질에서는 열이 가열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온도가 낮은 쪽으로 점차 전달되는데 이것을 열의 전도라고 한다. ④ 그러나 물이나 공기와 같은 것은 한쪽을 가열하면 가열한 곳에 있던 물이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찬물이나 공기가 아래로 내려 오면서 전체의 물이나 공기가 더워지게 된다. ⑤ 이와 같이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이동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한다.

위 글은 열의 이동 현상 중에서 열의 전도와 대류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단락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 글을 구조화<sup>41)</sup>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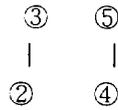
서에도 주로 이런 유형의 단락이 많이 나오므로 본 연구에서도 여러 유형의 단락 중에서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유형의 단락을 자료문으로 선택하였다.

41) 이 연구에서 구조화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분석 단위(문장)들을 관계 의미에 따라 수형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수형도로 나타낼 때에는 다음의 예처럼 상세화 등의 관계 유형을 표시하기도 한다.



상세화 관계는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결합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보인다가나, 전체에 대해서 부분을 제시한다거나, 상위 범주에 대해 하위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상세화 관계를 이루는 문장들의 의미는 종속적인 관계로 결합한다. 따라서 관계 수형도에서는 상하 관계로 표시된다. 일반, 전체 등을 나타내는 의미가 상위 정보이고, 예시 부분 등을 나타내는 의미가 하위 정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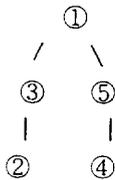
관계 의미의 종류는 이삼형(1994)에 따르면 수집, 부가, 공제, 인과, 이유, 비교/대조, 상세화, 문제/해결, 초담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글은 소주제문이 드러난 단락으로 최상위 구조에 위치하고 있는 ①의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된다. ③과 ⑤의 문장은 ①을 자세히 풀어쓰면서 정의하는 문장이며, ②와 ④의 문장은 각각 ③과 ⑤를 다시 자세히 예를 들어가며 풀어쓰는 문장으로 모두 ①의 뒷받침 문장들이다. 따라서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경우에는 ①이 요약문이 되며, 요약 분량<sup>42)</sup>을 늘릴 경우 ①③⑤의 문장들을 연결하여 요약문 작성하면 된다.

① 여자와 남자는 사고 유형이 꽤 다르다. ② 여자는 대개 현재의 상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③ 남자가 미래에 눈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④ 여자는 보통 가정, 사랑, 그리고 안정성을 주로 생각한다. ⑤ 남자는 모험과

42) 텍스트의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요약하느냐의 문제인 요약의 길이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요약문이라면 요약의 길이는 길어져야 하며, 텍스트의 내용 중에서 핵심만을 전달하기 위한 요약이라면 요약문의 길이는 짧아질 것이다.



위와 같은 수형도에서 ①에 해당하는 정보는 최상위 정보이므로 이 텍스트의 중심 내용이 된다. 요약문을 길게 하려면, 즉 좀더 상세화된 요약문을 만들려면 ①에 종속되어 있는 ②와 ③의 정보들을 묶어서 요약문을 만들면 된다. 이때 하나의 요약문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동등한 수준의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그 요약문은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없게 된다. 위 수형도의 경우 ①과 ③만을 요약에 포함시키고 ⑤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⑤와 그 하위 정보들이 요약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그 요약문은 전체를 포괄하는 요약이 되지 못한다.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⑥ 여자는 조그마한 성취에도 껍 기뻐한다.  
 ⑦ 남자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점이다.

이 글은 여자와 남자의 사고 유형의 차이를 주로 대조법을 사용하여 전개시키고 있는 단락이다. ①의 문장은 전체 글을 이끌어 내는 소주제문이다. ②와 ③, ④와 ⑤, ⑥과 ⑦은 각각 대조 관계를 이루며 결합하고 있으며, 여자와 남자의 사고 유형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중심 문장 ①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이를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글의 중심 문장은 최상위 구조에 있는 문장①이 된다. 따라서 이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경우 ①의 문장이 곧 요약문이 된다. 요약의 분량을 늘릴 경우에는 ②~⑦의 문장들은 각각 대등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라도 제외시켜서는 안되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문을 작성해야 한다.

①생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를 이어간다. ②소나 말, 돼지, 토끼와 같은 짐승들은 새끼를 낳아 대를 이어 가며, ③ 닭, 오리, 꿩, 비둘기, 참새와 같은 새나, 벌, 나비, 잠자리, 방아개비와 같은 곤충, 바다나 민물에 사는 물고기 등은 알을 낳아 대를 이어 간다. ④ 식물들 중에는 사과, 복숭아, 감, 밤, 수박

벼, 보리, 콩처럼 열매나 씨앗으로 대를 이어 가는 것도 있고, ⑤ 국화, 칸나, 감자, 고구마, 대나무, 딸기 등과 같이 뿌리나 줄기가 뻗어서 대를 잇는 것도 있다.

이 글은 생물들이 대를 이어 가는 방법에 대하여 주로 분류와 예시를 통하여 전개하고 있는 단락이다. 이를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다.



위 구조에서 알 수 있듯 ②③④⑤의 문장들은 각각 대를 잇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문장①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따라서 이 단락의 소주제문은 문장①이 된다.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경우 최상위 구조에 있는 문장①이 요약문이 된다. 요약의 분량을 늘릴 경우 앞의 예문처럼 ②③④⑤의 문장들은 각각 대등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삭제 규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동·식물의 이름을 제외시키고 새끼, 알, 열매나 씨앗, 뿌리나 줄기 등 대를 잇는 방법만을 넣어 요약문을 작성하면 된다. 이 글에서 ③과 ⑤를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여 번호를 붙인 것은 대등 접속문은 독립적이고 완결적이어서 분석 단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sup>43)</sup>

43) 텍스트 분석의 단위는 완결된 사고 단위를 나타내는 문(文)이 적당하다. 문에는 다른 문이 끼어 들거나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문에 끼어든 문(내포문)은 다른 텍스트 단위와 관계를 맺기 어려우므로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지 않는다. 다른 문에 연결된 문은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 두 가지가 있는데, 종속 접속문은 다른 단위와 관계를 맺기 어려운 통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분석 단위로 설정하지 않으며, 대등 접속문은 독립적이고 완결적이어서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이삼형(1994), 前掲論文, p. 62 참조)

①우리가 알고 있는 고장의 사정을 알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지도가 이용된다. ②산, 들, 강과 같은 고장의 땅 모양은 알려고 할 때에는 지형도를 보면 된다. ③고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산물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할 때는 산업도를 이용한다. ④고장에 있는 이름난 절, 성터, 경치가 좋은 곳 등 관광할 곳을 알아볼 때는 관광 안내도를 이용하면 좋다.

이 글은 주로 예시의 방법을 통하여 단락을 전개시키고 있다. 문장①이 중심문이 되며, ②③④의 문장은 이용되는 지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문장들로서 문장①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이 글을 간단히 요약할 경우에는 최상위 구조에 위치하고 있는 ①문장이 요약문이 되며, 좀 더 자세히 요약할 경우에는 지형도, 산업도, 관광 안내도 등의 예를 첨가하면 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할 수 있다.

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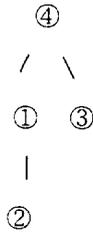
② ③ ④



### 3) 미괄식 유형의 단락 분석

① 고려 때에는 연등회라고 하는 국가적인 불교 행사가 있었다. ② 이때 궁궐에도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께 나라의 태평함을 빌면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겼다. ③ 오늘날에는, 부처님의 탄신일에 연꽃 모양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고 있다. ④ 등불을 밝히는 일에는,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고루 비추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 글은 예시를 통하여 단락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 글의 소주제문은 ④의 문장으로 연등 행사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으며, ①과 ③은 각각 고려 때의 연등 행사와 오늘날의 연등 행사를 예로 제시하며 문장④를 뒷받침하고 있는 보조 문장들이다. 문장②는 다시 문장①을 자세히 풀어쓰는 문장으로 이 단락을 구조화했을 때 가장 하위 수준에 놓이게 되는 문장이다. 이 글을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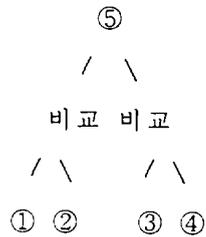


이 글을 간단히 요약할 경우 최상위 구조에 위치하고 있는 문장④가 요약문이 된다. 요약의 분량을 늘릴 경우에는 문장④에 문장①과 문장③의 내용을 첨가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면 된다. 문장②는 ①과 ③보다 하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외시킨다.

① 단원 김홍도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의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일상 생활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② 한편 혜원 신윤복은 도회지 양반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습을 즐겨 그렸다. ③ 두 화가의 기법을 비교해 보면, 김홍도는 힘찬 선을 중시하여 간결하면서도 순박한 필치를 보인 반면에, ④ 신윤복은 아름다운 색깔을 잘 사용하여 섬세하고 세련된 필치로 그리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다. ⑤ 이 두 화가는 백성들의 일상 생활이나 풍속을 즐겨 그려, 백성 중심의 시대가 열렸다는 느낌을 그림을 통하여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 글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에 대하여 비교의 방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다. 문장①과 문장②는 단원과 혜원의 그림의 소재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문장③과 문장④는 기법에 대하여 각각 비교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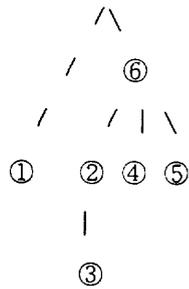
써 문장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글을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문장⑤는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는 소주제문으로 간단히 요약할 경우 요약문에 해당하게 된다. 요약을 길게 할 경우 ①②③④의 문장들은 대등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①②③④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면 된다.

① 농어촌에 가 보면 작은 고장에도 보건소가 있다. ② 비록 의사는 한 사람밖에 없고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도 적지만, 그들은 항상 주민들의 건강을 진찰하여 개인의 기록표까지 만들어 두고 있다. ③ 특히, 아기를 가진 아주머니들은 여기에 자주 찾아가 진찰을 받는다. ④또, 보건소에서 고치기 힘든 병이나 응급 환자가 있으면, 큰 병원의 응급차를 불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⑤ 또, 보건소 직원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질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쓰며, 건강 상담도 한다. ⑥ 농어촌의 보건소는 병원이 없는 농어촌에서 친절과 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장①은 단락을 끌어내기 위한 도입 문장에 해당하며, 문장⑥은 이 단락의 소주제문으로 보건소에 대하여 정의하는 문장이다. ②④⑤의 문장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설명하면서 ⑥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이 된다. 문장③은 문장②를 다시 부연하는 문장으로 글의 구조에서 가장 하위 수준에 놓이게 된다. 이 글을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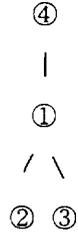
이 단락을 간단히 요약할 경우 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문장⑥이 요약문이 된다. 요약의 분량을 늘릴 경우 문장⑥에 문장②④⑤의 내용을 보태어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문장③은 문장②를 다시 부연하는 하위 수준의 정보이므로 요약에서는 제외시킨다. 이 때, 문장①과 문장⑥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문장①과 문장⑥은 관계 의미상 초담화<sup>44)</sup>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요약문 작성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① 우리 조상들이 배 만드는 데서 특히 뛰어난 솜씨를 보여 준 것은 거북선이다. ② 거북선은 균함으로서, 튼튼할 뿐만 아니라 양 옆에 노가 여러 개 있어 재빠르게 움직이며, 앞, 뒤, 옆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③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④ 이처럼 우리 겨레는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배를 주문해 오고 있다.

이 글은 예시와 부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다. 문장①은 거북선을 예로 제시하는 문장이며, 문장②와, 문장③은 각각 문장①의 거북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아울러 문장 ①②③은 문장④를 뒷받침하는 보조 문장들이며, 문장④는 이 단락의 주제인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을 서술하는

44) 초담화(meta-discourse) 관계는 텍스트의 내용을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기능보다는 내용 형성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초담화 관계는 '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등과 같이 내용 도입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 등과 같이 내용의 전환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삼형(1994), 前揭論文, p. 7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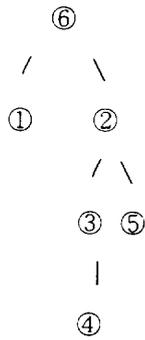
소주제문이 된다. 이 글을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단락을 간단히 요약할 경우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문장④가 요약문이 된다. 요약의 분량을 늘리려면 ④와 ①의 문장을 묶어서 요약문을 작성하면 된다.

① 일본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게 되자, 뜻있는 애국 지식들은 신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② 그리하여 많은 사립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1905년을 전후해서 서울에는 양정 의숙과 보성 학교 등이 세워졌다. ③ 양정 의숙은, 엄주익 선생이 일본을 시찰하는 동안 우리 나라에 가장 급한 일은 신식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 세운 학교이다. ④ 애국심과 민족 정신을 깨우치는 데 힘쓴 양정은, 후일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를 길러 내어 그 이름이 더욱 빛났다. ⑤ 보성 학교는 이용익 선생이 세운 학교인데, 얼마 후 천도교가 학교의 운영을 맡고 나서부터 민족 학교로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⑥ 양정, 보성 등의 민족 학교들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후에도 변함없이 민족 교육에 앞장섰다.

이 글에서 문장①은 일본 침략기에 사립 학교들이 세워진 동기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소주제문 ⑥을 부연하고 있으며, 문장②는 설립된 사립 학교의 예를 드는 문장이다. 문장③과 문장⑤는 ②의 예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며, 문장④는 다시 문장③의 양정 의숙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는 문장이다. 이 글을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단락의 중심 문장은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는 문장⑥이다. 따라서, 이 글을 가장 간단히 요약할 경우의 요약문도 문장⑥이 된다. 요약의 분량을 늘릴 경우 문장⑥보다 한 단계 낮으면서 서로 동등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문장①과 ③을 문장⑥과 묶어서 요약문을 작성하면 된다. 만약 좀더 길게 요약을 하려면 문장 ⑥①②에 ③과 ⑤의 문장을 첨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4) 양괄식 유형의 단락 분석

① 민주 사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다. ②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③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이와 같이, 민주 사회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며, 각자가 지닌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이 단락은 민주 사회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임을 말하는 양괄식 유형의 단락이다. 문장 ②는 존중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부연하는 문장이며, 문장 ③은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②를 좀더 자세히 풀어쓰고 있는 문장이다. 이 단락을 구조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④

|

②

|

③

이 글을 요약할 경우 최상위 구조에 있는 ①과 ④의 문장에서 삭제 규칙을 적용한다. 이 때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sup>45)</sup>

① 가정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한다. ② 상현이네는 논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과 비닐 하우스에서 가꾼 채소를 내다 판 수입으로 살아간다. ③ 숙희네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받은 봉급으로 살림을 꾸려 나간다. ④ 한편, 영수네는 멀리 국외에 나가 기술자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봉급으로 살아간다. ⑤ 또, 영희네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봉급과 옷가게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수입으로 생활한다. ⑥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간다.

이 글에서 문장 ①과 ⑥은 식구들의 수입으로 가정의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소주제문으로 문장 ②③④⑤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문장 ②③④⑤는 각각 여러 가정의 수입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주제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이를 구조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⑥

/ / \ \

② ③ ④ ⑤

이 글을 요약할 경우에도 앞의 예문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문장 ①과 ⑥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요약문을 작성한다.

①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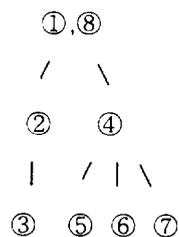
45) Brown & Day가 실제 실험에 적용한 요약 규칙 ②를 적용함을 뜻함.

② 우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력을 기른다. ③ 국군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민들은 국력을 길러,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민 생활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 나라 안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경찰관들이 이 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한다. ⑥ 또,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해 준다. ⑦ 국가가 공익을 위한 일을 하다가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법에 따라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⑧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국민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일들을 나라 밖과 나라 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문장 ①은 문장 ②~⑦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을 위한 일임을 포괄하는 주제문이다. 문장 ⑧역시 문장 ①과 마찬가지로 ②~⑦의 내용을 묶어서 제시하는 문장으로 양괄식 유형에서 또 하나의 주제문이 된다. 문장 ③은 문장 ②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풀어쓰고 있다. 문장 ⑤,⑥,⑦ 문장④의 나라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예시의 방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이 글을 구조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에는 최상위 구조에 위치하고 있는 문장 ①과 ⑧을 묶어 요약문을 작성한다. 이 때 역시 삭제 규칙이 적용된다. 요약문을 길게 할 경우 ②와 ④의 문장을 보태어 작성한다.

## 2. 전체글 요약하기

①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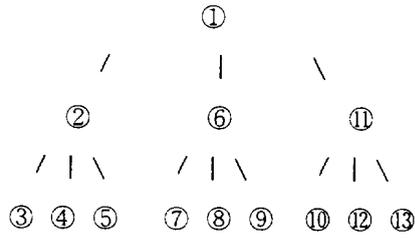
②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한다. ③녹색식물은 햇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④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은 식물체에 이용되고, 남은 것은 자기 몸에 저장된다. ⑤생태계에서 양분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녹색식물이기 때문에 녹색식물을 생산자라고 한다.

⑥생태계에서는 메뚜기와 개구리 같이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다룰 것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동물을 소비자라고 한다. ⑦메뚜기와 개구리는 모두 소비자이지만 먹이는 서로 다르다. ⑧메뚜기와 같이 식물을 먹고사는 동물을 초식 동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초식동물을 일차 소비자라고도 한다. ⑨또 개구리와 같이 일차 소비자인 메뚜기를 먹고사는 동물을 이차 소비자라 하며, 이차 소비자를 먹고사는 삼차 소비자도 있다.

⑩생태계에서 생물이 죽어 오래되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죽은 생물체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해하기 때문이다. ⑪이와 같이 죽은 생물체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분해자라고 한다. ⑫만일 생태계에 이들 분해자가 있어 분해시키

지 않는다면 생태계는 아마도 죽은 생물의 시체로 가득 쌓이게 될 것이다.  
 ⑬ 또한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된 여러 가지 물질들은 다시 생산자인 녹색 식물에게로 돌아간다.

위 글은 생태계에 대하여 정의와 분석, 예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의 구조를 도식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글 전체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문장은 최상위 구조에 있는 ①의 문장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 ②는 생산자에 대하여 정의하는 문장이다. ③④⑤의 문장은 생산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의 소주제문은 문장 ②가 된다.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문장은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하는 ⑥의 문장이다. ⑦⑧⑨는 소비자에 대하여 다시 하위 분류하고 있는 문장들로 ⑥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조 문장들이다. 네 번째 단락에서 중심 문장은 분해자에 대하여 정의하는 문장 ⑩이다. 문장 ⑩은 미생물이 분해하는 예를 제시한 문장이다. 문장 ⑫와, 문장 ⑬은 분해자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부연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위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경우 구조의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문장 ①이 요약문이 된다. 문장 ②⑥⑩의 경우 각 단락에서는 중심 문장에 해당되지만, 문장 ①과의 관계에서는 문장 ①을 상세화 하는 관계이므로 문장 ①보다는 하위 수준에 위치하게 되어 한 문장 요약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요약 분량을 늘릴 경우에는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인 ②⑥⑩의 문장

들을 연결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면 된다. 문장 ②⑥⑩의 경우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같은 수준에 위치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제외시키면 전체를 포괄하는 요약문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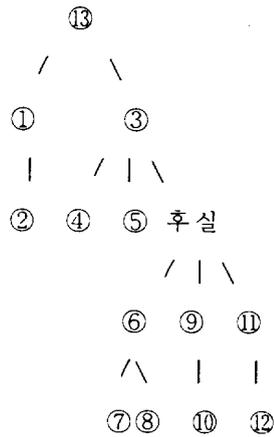
① 석굴암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김대성에 의해 세워졌다. ② 그는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세웠다고 한다.

③ 석굴암의 내부 구조는 네모꼴의 전실과 둥근 방인 후실, 그리고 전실과 후실을 연결하는 통로로 되어 있다. ④ 전실의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불법의 수호신인 여덟 신장이 늘어서 있는 모습과, 부릅뜬 눈에 팔을 쳐들고 있는 두 금강역사를 볼 수 있다. ⑤ 후실로 들어가는 통로에서도 역시 불법의 수호신인 사천왕이 발로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⑥ 후실로 들어서면 방 한가운데에 우뚝 자리잡은 본존불상을 대하게 된다. ⑦ 연대 위에 장중하게 앉아 있는 본존불의 넓은 어깨에는 위엄이 서려 있다. ⑧ 그러나 반쯤 뜬 눈, 아담한 눈썹, 사랑이 넘치는 입, 길게 늘어뜨린 귀는 모두 자비롭기만 하다. ⑨ 본존불의 머리 위쪽으로는 돌로 교묘하게 쌓아올린 둥근 천장과 그 한가운데의 둥근 판석을 볼 수 있다. ⑩ 둥근 천장은 우주를, 둥근 판석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한다. ⑪ 다시 눈을 돌려 후실을 살펴보면, 본존불상 주위의 벽면에 조각되어 있는 여러 보살상과 10대 제자상, 십일면관음보살상 등을 볼 수 있다. ⑫ 본존불상 뒤쪽에 서 있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자애로운 표정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양쪽으로 부처의 10대 제자상과 여러 보살상들이 좌우 대칭으로 늘어서 있다.

⑬ 석굴암은 우리 조상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조각 솜씨, 불교 신앙이 어우러져 이룩된 문화재로, 한국 불교 예술사상 최고의 걸작이다.

이 글은 주로 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석굴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문은 석굴암의 우수성에 대하여 말하는 ⑬의 문장이다. 문장①

은 석굴암이 세워진 경위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며, 문장③은 석굴암의 구조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다. 문장②는 문장①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문장③을 부연하는 문장으로 문장④와 ⑤는 각각 전실과 통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들이고, ⑥⑨⑪은 후실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다시 문장⑦과 ⑧은 문장⑥을, 문장⑩은 문장⑨를, 문장⑫는 문장⑪을 각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이 글을 구조화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조에서 알 수 있듯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경우에는 최상위 구조에 있는 문장⑬이 요약문이 된다. 2~3 문장으로 요약할 경우에는 ⑬①③을 연결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며, 요약의 분량을 늘릴 경우 대등한 수준의 문장들끼리 묶어 가며 서술하면 된다.

① 지체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하여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졌었다. ② 사람들은 번개, 폭풍, 지진, 가뭄 등을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특히, 태양을 비롯하여 높은 산, 큰 나무 등에는 신이 있다고 여겨 두려워하고 받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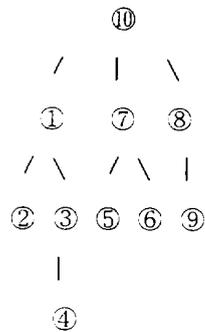
어 모셨다. ④ 요즈음에도 고갯마루나 동구 밖 큰 나무 아래에 남아 있는 서낭당을 볼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서낭당에 절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었다.

⑤ 또, 사람들은 신의 뜻을 미리 알고 싶거나, 그들이 바라는 바를 신에게 알리기 위하여 무당을 찾았다. ⑥ 무당은 신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⑦ 무당은 신의 노여움을 풀고 병을 낫게 하거나, 사람들의 소원을 신에게 전하기 위하여 굿을 하였다.

⑧ 한편,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씨를 뿌린 후에 농사가 잘되도록 빌었으며, 곡식을 거둔 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⑨ 이러한 풍습은 점차 큰 행사로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춤과 노래와 음식으로 즐기기도 하였다.

⑩ 원시 신앙의 여러 모습은 우리 민족의 일상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글은 원시 신앙이 일어난 원인과 형태에 대하여 자연물 숭배(①~④), 무당을 통한 굿(⑤~⑦), 제사(⑧~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체 글의 구조는 미괄식으로 문장 ⑩은 원시 신앙의 의미를 서술하는 주제문이 된다. 이 글을 구조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락의 소주제문은 각각 문장①⑦⑧이 된다. 가장 간단하게 요약할 경우에는 문장⑩이 요약문이 되며, 차츰차

---

춤 같은 수준의 문장들끼리 묶어 가면서 요약문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 IV. 요약 지도의 적용과 검증

### 1. 대상

제주시 소재 S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 74명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S초등학교는 5학년이 총 5개 학급이고 4학년말 성적을 기준으로 각반의 평균이 균등하게 편성되었으며, 한 학급 학생 수는 남학생 18명, 여학생 19명으로 평균 37명 정도이다. 표집한 2개 학급 중에서 한 학급은 요약하기 훈련을 실시한 실험반이고, 다른 학급은 이를 실시하지 않은 비교반이다.

### 2. 지도 방법 개관

실험 집단 1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문 단락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요약하기 방법을 지도하였다. 지도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한 단락 요약하기

- 단락의 구조 분석
- 중심 문장 찾기
- 요약 규칙 적용
- 요약문 작성

#### ② 전체글 요약하기

- 각 단락의 중심 내용 찾기
- 단락간의 구조 분석
- 요약 규칙 적용

-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여 전체 글의 요약문 작성하기  
한 단락 요약하기 지도의 경우를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정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한다. ② 상현이네는 논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과 비닐 하우스에서 가꾼 채소를 내다 판 수입으로 살아간다. ③ 숙희네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받은 봉급으로 살림을 꾸려 나간다. ④ 한편, 영수네는 멀리 해외에 나가 기술자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봉급으로 살아간다. ⑤ 또, 영화네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봉급과 옷가게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수입으로 생활한다. ⑥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간다.

위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구조 분석을 위하여 분석 단위(문장)마다 일련 번호를 붙이게 한다. ①~⑥이 분석 단위가 된다. 그런 다음 서술된 문장 순서대로 문장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먼저 ①과 ②의 관계를 보자. ①은 가정의 살림을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진술이다. ②는 일반적인 진술인 ①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상현이네는 농사를 통한 수입으로 살아간다는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①과 ②는 상세화 관계로 연결되며, 구체적 진술인 ②가 ①보다 하위 수준에 놓이게 된다. ③은 숙희네는 아버지의 봉급으로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예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적 진술인 ①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예시 문장인 ②와는 동등한 수준이며 ①의 하위에 놓이게 된다. ④와 ⑤의 문장도 ②, ③과 같은 방법으로 관계를 파악해 나간다. ⑥은 ②~⑤의 예시 문장들을 포괄하여 진술하는 문장으로 ②~⑤보다는 상위에 놓이게 되며, ①과는 대등한 수준의 문장이 된다.

분석 단위들 간의 관계가 파악되면 단락의 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 보도록 한다.<sup>46)</sup> 수형도를 통하여 이 단락의 중심 문장은 최상위 수준에 있는 ①과 ⑥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요약문도 ①과 ⑥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①과 ⑥으로 요약문을 작성할 때에는 요약 규칙을 적용하여 '가정', '살림', '꾸려 나간다' 등의 반복되는 말은 삭제한다. 그리고 '식구들 가운

46) 35쪽의 수형도 참조.

데 누군가가'와 '돈을 벌어야'는 각각 '사람들'과 '수입'등의 상위어로 대치하여 작성한다.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진 전체 글을 요약하는 것도 한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47)</sup> 먼저, 앞서 살펴본 대로 각 단락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중심 내용이 파악되면 각 단락의 중심 내용들이 이루는 관계를 분석한다. 그런 다음 관계 구조에 따라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종합하면 전체 글의 요약이 된다. 요약문 작성에는 한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약 규칙을 적용한다.

한 단락과 전체글의 요약 지도는 먼저 교사의 안내, 다음으로 교사 - 학습자의 협력 활동, 학습자의 독립적 연습 순으로 실시하였다. 각 단계에 투입된 자료문은 유형별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 지도 시간은 3월 한달 동안 아침 공부 시간 20분씩과 국어(읽기) 시간을 이용하였다.

지도에 앞서 실험반과 비교반의 요약 능력 정도를 기초 조사하였고, 지도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요약 능력을 평가하여 단락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요약하기 지도가 학습자의 요약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하였다.

요약 지도에 이용된 자료문은 국어 읽기 교과서의 예문 외에 1991년 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읽기 학습 전략 훈련 지침서의 글들<sup>48)</sup>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 3. 요약 지도 적용 결과 검증

실험반과 비교반을 구성하여 단락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요약하기 지도 결

47) 37쪽의 예문 분석 내용 참조.

48) 읽기 학습 전략 훈련 지침서의 글들은 주로 사회, 자연 교과서에 실린 글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 사회, 자연과의 예문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설명문 유형이라 하겠다. 그리고 지침서에서 부족한 부분 특히 미괄식과 양괄식 유형의 단락들은 사회와 사회과 탐구에서 뽑은 예문이다.

과 학생들의 요약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제1차로 요약 지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반과 비교반에 자료문을 제시하고 요약하도록 하였다. 제2차로 실험반은 요약 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비교반은 요약 학습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 능력을 테스트 하였다.

학생들의 요약문을 채점하는 데 있어서 측정의 기준은 Marton and others<sup>49)</sup>의 다음과 같은 이해 수준의 구분을 참고로 하였다.

- 제 4 수준의 이해 : 결론 및 기술 사항이 상세하게 기술된 반응으로서 저자의 주요 논의점이 요약되어 제시되며 이런 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 사항이 논급된다. 또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고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제 3 수준의 이해 :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하지만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이 상세하지 못하다. 즉, 증거 제시가 미숙한 반응으로 결론에 도달할 때 개인적으로 사고한 내용도 불명확하다.
- 제 2 수준의 이해 :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지만 세부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반응으로서 과제에 제시된 항목을 나열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제 1 수준의 이해 : 결론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도 상세히 기술하지 못하는 반응으로서 합당치 못한 정보를 제시하는 등 개인적 사고의 취약성을 드러내 보인다.

위의 네 가지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요약문의 채점 기준을 좀더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4 수준은 단락의 중심 문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자신의 말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내용의 재구성은 개인적 사고의 결과로서 어느 정도 명확한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

49) 천한신(1987), 前掲書, p. 37에서 再引用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제 3 수준은 비록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세부 정보가 불충분하며,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지 못한 경우이다.

셋째, 제 2 수준은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빠지고 정보의 일부분만을 단지 옮겨 나열해 놓은 경우이다.

넷째, 제 1 수준은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도 매우 불충분하며, 나아가서는 텍스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경우이다.

요약 지도 결과에 대한 분석은 <표1>과 같다.

<표1> 실험반과 비교반의 요약문 채점 결과 비교

구분	횟수	제 4 수준	제 3 수준	제 2 수준	제 1 수준	N
실험반	1차	3명 (8.1%)	16명 (43.2%)	16명 (43.2%)	2명 (5.4%)	37
	2차	5명 (13.5%)	21명 (56.7%)	10명 (27%)	1명 (2.7%)	37
비교반	1차	2명 (5.4%)	16명 (43.2%)	17명 (45.9%)	2명 (5.4%)	37
	2차	1명 (2.7%)	11명 (29.7%)	24명 (64.8%)	1명 (2.7%)	37

위의 조사 결과에서 얻어진 바는 ,

첫째, 요약 지도를 실시한 실험반의 경우 제1, 제2 수준의 학생이 48.6%에서 29.7%로 감소한 반면, 비교반의 경우 51.3%에서 67.5%로 증가하여 단락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요약 지도가 학생들의 요약 능력의 향상에 의의 있음이 나타났다. 비교반의 경우 2차 평가에서 제1, 제2 수준이 증가한 것은 자료문의 수준이 1차에 비하여 어려워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둘째, 실험반의 경우 제 2 수준에서 제 3 수준으로의 이동은 많으나, 제 4 수준으로의 이동이 많지 않았다. 이는 각 단락에서 중심문 찾기는 구조

분석 지도를 통하여 향상되었으나 자신의 말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분히 쓰기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요약하기는 쓰기와도 관련하여 지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요약하기 양상을 검토한 결과 삭제, 일반화, 선택, 구성 등의 요약 규칙 중에서 삭제 규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중요하더라도 반복되는 내용의 삭제가 두드러졌다.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실제 요약문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0)</sup>

<학생 1> (제2수준→제3수준)

· 1차평가 요약문<sup>51)</sup>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 식물은 햇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메뚜기와 같은 초식 동물을 일차소비자라고 하고, 메뚜기를 먹고 사는 동물은 이차 소비자, 이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삼차 소비자도 있다.

생태계에서 생물이 죽어 오래되면 썩어서 없어지게 되며 이것은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죽은 생물체를 여러가지 물질로 분해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물질로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분해자라고 한다.

· 2차평가 요약문

물자를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생산요소'라고 한다. 사람들의 일하는 노력을 '노동'이라고 하고, 노동 없이는 물자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노동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 또,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와 기계나 원료 등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인 자본이 있어야 한다.

50) 학생들의 요약문에는 맞춤법이 틀리거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 요약 실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51) 제1차와 제2차 평가 자료문은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부록에 실었다.

<학생2> (제2수준→제3수준)

· 1차평가 요약문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한다.

또 생태계에서 양분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녹색 식물이기 때문에 녹색 식물을 생산자라고 한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생물이 죽어 오래되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죽은 생물체를 여러가지 물질로 분해하기 때문이다.

· 2차평가 요약문

물자를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생산요소'라고 하며 사람들의 노력을 '노동'이라고 한다. 노동 없이는 물자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노동은 가장 중요하다.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 기계나 원료 등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자본이라고 한다.

<학생3> (제2수준→제3수준)

· 1차평가 요약문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한다. 생태계에서 양분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녹색 식물이기 때문에 녹색 식물을 생산자라고 한다.

생태계에서는 메뚜기와 개구리 같이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동물을 소비자라고 한다.

· 2차평가 요약문

물자를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생산요소'라고 한다. 생산 요소에는 노동, 토지, 자본이 있다. 그 중에서 노동 없이는 생산할 수 없으므로 노동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하고, 기계나 원료 등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자본이라고 한다.

학생1, 2, 3은 모두 제2수준에서 제3수준으로 이동한 경우로 이는 실험반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1차평가에서 학생1은 요약문에 들어가야 할 ①②⑥⑩의 문장 중에서 문장 ②와 ⑥이 빠져 있고, 학생2의 요약문에는 ②⑥⑩이 제외 되었다. 학생3은 ②와 ⑩이 빠져 있다. 즉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빠지고 문장의 일부분만을 단지 옮겨 나열해 놓고 있다. 2차평가에서는 학생1과 학생2, 학생3 모두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단락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요약하기 지도가 중심 내용을 찾아 내어 요약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4> (제3수준 → 제4수준)

· 1차평가 요약문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한다. 또 생태계에서는 동물을 소비자라고 한다. 죽은 생물체를 여러가지 물질로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분해자라고 한다.

· 2차평가 요약문

물자를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생산요소라고 한다. 그중 사람들의 노력을 노동이라고 하며, 그 외에 생산을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계나 원료 등을 구할 자본도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학생4는 제3수준에서 제4수준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1차평가에서는 중심 문장은 찾아냈으나 세부 정보가 불충분하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2차평가에서는 중심 문장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중심 내용은 찾아내고 있으나 이를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데는 저항을 받고 있다.



## V. 결론

글의 요약은 독해 과정에 요구되는 모든 독해 전략들을 총동원하게 되는 고도의 읽기이다. 그래서 독자가 글을 읽은 다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요약을 하게 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생들의 요약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락 분석을 통한 요약하기 지도가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설명서에서부터 대다수의 교과서에 실린 글들에 이르기까지 설명적인 유형의 글들을 많이 대한다. 그리고 설명문이 비교적 구조 분석과 요약에 용이하여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기가 쉬운 까닭으로 이 연구에서는 설명문을 중심으로 요약하기 지도를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선택한 자료문들은 초등 학교 5, 6학년 국어, 사회, 자연과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가려 뽑았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으로서 텍스트의 구조 분석 이론과 요약하기 규칙, 단락 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요약 지도의 실제에는 초등 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한 단락의 자료문에서 단락의 구조를 분석한 후 요약 규칙을 활용하여 중심 문장 찾기를 지도하고, 다음으로 전체 설명문의 요약문을 작성하는 순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락의 구조 분석을 통한 요약 지도가 학생들의 요약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요약하기의 가장 상위 수준인 제 4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쓸 수 있는 쓰기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 학교 5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요약 규칙 중에서 삭제 규칙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

며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문장은 삭제할 수 있으나, 귀납법적인 일반화된 문장으로의 구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먼저, 연구 범위를 설명문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강한 논설문이나 이야기 글의 요약하기와 관련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약하기는 독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요약문 작성이라는 문자 표현상의 문제도 다르므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광웅(1989), 「문장구조연구」, 전예원.
- 김봉균(1993), 「문장 기술론」, 삼영사.
- 노명완(1989), 「국어교육론」, 한샘.
- 서정수(1994),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사닥다리.
- 신헌재 · 이재승(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 이대규(1994), 「수사학」, 한글과컴퓨터.
- \_\_\_\_\_ (1995), 「국어교과의 논리와 교육」, 교육과학사.
-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교육부(1993),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 \_\_\_\_\_ (1996), 「사회 5-1」.
- 한국교육개발원(1991), 「관계짓기 학습 전략」.
- \_\_\_\_\_ (1991), 「읽기 학습전략 훈련 지침서」.
- \_\_\_\_\_ (1991), 「정교화 학습 전략(2)」.
- Beaugrande, R. A. · Dressler, W. U., 「담화 · 텍스트 언어학 입문(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김태욱 · 이현호 譯(1991), 양영각.
- Michael Stubbs,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송영주 譯(1993), 한국문화사.

### <논문>

- 강성일(1990), “읽기 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혁(1990), “단락 · 문장의 중요도 파악과 단락의 주제문 작성능력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우형(1987), “사고력신장을 위한 독해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

- 학교 대학원.
- 임두순(1989), "독해전략 훈련의 학습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달영(1992), "국어 작문 교육에서의 단락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정문환(1980), "효율적인 독해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주영(1992),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천한신(1987), "인지발달에 따른 글 내용의 중요도 파악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Kintsch, W. & van T. A. Dijk(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 No.5, pp. 363~394.
- Meyer, B.J.(1975), *The Organization of Prose and its Effect on Memory*, Amsterdam: North-Holland.
- Brown, A.L. & Day J.D.(1983), "Macrorules for Summarizing Texts: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2.

◆ Abstract ◆

## A Study of Teaching methodology for Effective Summarization by Structure Analysis of Paragraphs

Ahn, Mi- You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fessor Kim, Guang- Woong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topic sentenc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paragraphs and, by means of this technique, looking for teaching methods for effective summarization. For this study, the text structure analysis theory, paragraph theory, and summarizing rules were consider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s a model for this study, 5th grade primary school students were employed, which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for experiment purpose in other to test students' improvement on summarization, and the other comparison's sake. Expository texts were used as main reading materials, which were taught utilizing definition, comparison/contrast, classification, analysis, illustration, etc. according to the styles of paragraph development. Then, the students were asked to summarize the compound reading materials. The instruction was made, with one or two-sentence texts first, followed by one-paragraph texts, and several paragraph text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 evaluation of the recall items were free-text groups. The information in the narrative and the paragraph was effectively recalled to help improve recall items with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The study, however, had its reading materials in expository texts, and it was expected that the communication skill was not achieved. Also, it was hoped that the future research will develop a method for poor readers and increase their reading skills.

---

# 부 록



<설명문 요약 지도 자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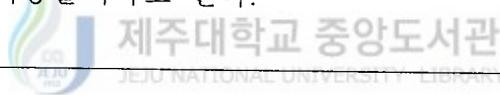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에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이 있다.

물벼룩은 녹색말을 먹고 살며, 진딧물이나 매미는 식물의 진을 빨아먹고 산다. 그런가 하면, 소와 말, 토끼, 노루, 사슴과 같은 동물은 나뭇잎이나 풀을 뜯어먹고 산다. 이와 같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우리는 초식동물이라 한다.

그러나, 호랑이, 사자, 독수리, 뱀, 상어, 고래 등과 같은 동물들은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와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산다. 이와 같은 동물은 육식동물이라고 한다.

또, 닭, 오리와 같은 새종류 중에는 식물의 씨앗도 먹고 벌레나 물고기 등 작은 동물을 잡아 먹는 것도 있다. 사람, 돼지 또는 쥐는 식물성 먹이와 동물성 먹이를 함께 먹는다. 이와 같은 동물을 잡식동물이라고 한다.



(1) 위 글을 읽고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2) 위 글을 3~4문장으로 간추려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즈음은 물가가 안정되어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하기가 참 쉽다.”고 할 때의 물가는 상품 하나 하나의 값을 말하는 가격과는 다르다. 이것은 곡식, 채소, 생선, 옷, 학용품 등 여

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시장에 나온 상품 중에서 과일 값은 내리는데 생선 값은 오를 때가 있고, 반대로 과일 값은 오르는데 생선 값은 내릴 때가 있다. 이렇게 과일이나 생선과 같은 한두 가지 물건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물가가 올랐다 또는 내렸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한두 가지 물건값은 내려도 다른 여러 가지 물건값이 올라 시장 전체의 물건값이 평균적으로 올랐을 때,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반대로, 시장 전체의 물건값이 평균적으로 내렸을 때, '물가가 내렸다.'고 한다.

- (1)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자.
- (2) 이 글을 2~3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가가 오르면 일정한 소득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가정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산자도 일시적으로는 이윤을 많이 남겨서 좋아 보이지만, 생산품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가가 내리면 생산자는 이윤이 줄어 어렵게 되고, 반면에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좋아 보인다. 그러나 물가가 계속 내리면 생산자가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물가가 오를 때, 사치품이거나 당장 쓰지 않아도 될 물건은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줄일 수 있지만, 쌀 또는 연탄과 같이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값이 올라도 소비량을 줄일 수 없다.

(1) 이 글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단락을 전개시키고 있나?

(2) 이 글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이 겨울을 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벼, 옥수수, 콩, 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맨드라미 등과 같은 일년생 식물은 씨만 남아 겨울을 난다.

보리나 밀, 다알리아, 토란, 억새, 나리, 잔디, 쭉, 도라지, 더덕, 인삼 등과 같은 식물들은 땅속뿌리나 땅속줄기가 남아 겨울을 난다.

참나무, 버드나무, 아카시아, 포플러, 플라타너스 등과 같은 낙엽수들은 잎이 지고 가지만 남아 겨울눈을 내어 겨울을 나며, 봄이 되면 겨울눈에서 새로운 잎이나 꽃이 돋아 피어난다.

소나무, 사철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전나무 등과 같은 상록수는 푸른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그대로 겨울을 난다.

(1)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을 찾아 쓰자.

(2) 위 글을 1/3 정도로 간추려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와 같은 물체들은 강한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니켈, 스테인레스 스틸 등과 같은 금속 물질을 많이 사용하여 만든다.

유리창이나 시험관, 비이커 등은 유리로 만들고 양동이, 합지박, 쓰레기통, 바가지, 플라스틱 컵 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옷장이나 책상, 걸상처럼 나무로 만든 물체도 많다. 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 고무공, 고무줄 등은 고무라는 물질로 만든다.

이 밖에도 물체를 이루는 물질들은 수없이 많이 있고, 어떤 물체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들도 많다.

(1)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 보자.

(2) 이 글을 1/3 정도로 간추려 적어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정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한다. 상현이네는 논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과 비닐하우스에서 가꾼 채소를 내다 판 수입으로 살아간다. 숙희네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받은 봉급으로 살림을 꾸려 나간다. 한편, 영수네는 멀리 해외에 나가 기술자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봉급으로 살아간다. 또, 영희네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봉급과 옷가게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수입으로 생활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간다.

(1) 위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 놓고 파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사 가는 사람도 있다. 또,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가게에 넘기거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 파는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는 사지 않으나 이것저것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 농촌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모습을 닷새마다 한번씩 서는 장날에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시장은 날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복잡하다.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아무때라도 시장에서 사다 쓰기 때문이다.

- (1) (가)단락의 중심 문장을 쓰시오.
- (2) (나)단락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한 문장을 고른다면 어느 문장인가?

<제 1 차 요약 평가 자료문>

※ 다음 글을 잘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을 골라 간추려 적으세요.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한다. 녹색식물은 햇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은 식물체에 이용되고, 남은 것은 자기 몸에 저장된다. 생태계에서 양분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녹색식물이기 때문에 녹색식물을 생산자라고 한다.

생태계에서는 메뚜기와 개구리 같이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다룰 것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동물을 소비자라고 한다. 메뚜기와 개구리는 모두 소비자이지만 먹이는 서로 다르다. 메뚜기와 같이 식물을 먹고사는 동물을 초식 동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초식동물을 일차 소비자라고도 한다. 또 개구리와 같이 일차 소비자인 메뚜기를 먹고사는 동물을 이차 소비자라 하며, 이차 소비자를 먹고사는 삼차 소비자도 있다.

생태계에서 생물이 죽어 오래되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죽은 생물체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죽은 생물체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분해자라고 한다. 만일 생태계에 이들 분해자가 있어 분해시키지 않는다면 생태계는 아마도 죽은 생물의 시체로 가득 쌓이게 될 것이다. 또한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된 여러 가지 물질들은 다시 생산자인 녹색식물에게로 돌아간다.

<제 2 차 요약 평가 자료문>

※ 다음 글을 읽고 간단히 요약해 보자.

물자를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생산 요소'라고 한다.

현주는 지난 여름에 농촌에 가서 보았던 농사짓는 분들의 모습과, 아버지께서 다니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논과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공장에서도 원료를 나르고 기계를 움직이는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을 '노동'이라고 한다. 노동 없이는 물자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노동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된다.

한편 물자의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논이나 밭이 있어야 하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공장 터가 필요하다.

또, 공장에는 물건을 만들어 낼 기계도 있어야 하고, 원료도 있어야 한다. 기계나 원료 등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자본'이라고 한다.

토지와 자본의 차이점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생산 요소이지만, 자본은 사람이 만든 생산 요소라는 점이다.